“마음 평안 줄 선명상, 불교의 현대적 표현”

선명상대회 초청 해외 지도자들
9월 26일 간담회서 ‘선명상’ 기대감
“고통 원인은 훈련되지 않은 마음”
선명상 세상 평화 웰빙 기여 기대도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2024 국제선명상대회 해외 명상지도자들은 9월 26일 기자간담회에서 “명상 수행이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고통의 원인은 훈련되지 않은 마음입니다. 명상과 수행이 마음을 평안하게 해 줄 것입니다.”

9월 28일 개최되는 ‘2024 국제선명상대회’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해외 명상 전문자들이 9월 2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대회의 의미를 전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미국 우파야선 센터 주지이자 호스피스 및 임종 돌봄 분야 선구자 로시 조안 할리팩스, 달라이 라마 통역자이자 자비계발 수행법(CCT) 개발자 툽텐 진파, 틱낫한 스님이 세운 국제수행센터 플럼빌리지 명상 지도자 팝루 스님,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티베트 불교 가르침을 전하는 직메 린포체가 참석했다. 이번 국제선명상대회에 큰 기대감을 표한 이들은 불교 가르침이 현대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제는 불교를 현대적 의미로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한 툽텐 진파 박사는 “불교의 가르침을 잘 활용하면 세상의 평화와 웰빙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낡은 언어, 보호해야 할 유산으로서의 불교가 아니라 오늘의 언어로 불교를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그 한 방편으로 명상을 제시한 그는 “명상은 세상을 보는 시각을 보는 과정이며, 불교적 수행으로 통찰을 내면화하는 것”이라면서 “타인을 배려하고 내 감정의 지평을 잘 이해하게 되면 개인 차원을 넘어 공적인 영역에서도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을 고통의 원인으로 지목한 직메 린포체는 “고대 가르침인 불교를 현대에 적용, 실천 가능하게 하는 것 중 하나가 마음 훈련”이라면서 “불교 지혜가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날 해외 명상 지도자들은 9월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되는 2024 국제선명상대회에 대한 큰 기대감를 표했다.

‘5분 명상’에 기대를 표한 로시 조안 할리팩스는 “수만명이 함께 한 호흡으로 집중, 명상 한다는 것 자체가 경이로운 일”이면서 “한 번의 호흡이라도 그 속에 온전히 깃들 수 있다면 기적이다. 개인의 삶을 넘어 모두에게 확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명상’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세계에 알리는 데 진력하고 있는 조계종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팝루 스님은 “은사 틱낫한 스님은 사회 참여와 명상 수행은 둘이 아니라고 강조했다”면서 “수만명이 참여하고 실천하는 국제선명상대회라는 고귀한 자리를 만들어준 조계종에 찬탄을 보낸다”고 말했다.

직메 린포체도 “전 세계가 과학기술 발전이라는 큰 성과 속에서도 정서적 건강을 도모하거나 인성을 다듬는 것에 소홀해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번 국제선명상대회에서 공개될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

진우 스님 “업장 소멸하려면 선명상하라”

서울국제명상엑스포 콘퍼런스서
‘선명상과 현대물리학’ 주제 강의
“苦樂서 벗어나는 게 선명상 목적”

“선명상을 하면 마음이 고요해지며, 업장이 사라지고, 일체 괴로움이 함께 사라집니다. 이를 우리 모두에게 성취하면 세상은 불국정토가 될 것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9월 24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린 제5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 명상콘퍼런스 기조강연에서 선명상의 필요성과 실천법을 전했다.

‘선명상과 현대물리학’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기조강연에서 진우 스님은 현대물리학의 첨단 이론인 양자역학과 불교의 상관관계를 살폈다.

진우 스님에 따르면 양자 중첩은 〈반야심경〉의 ‘색즉시공 공즉시색’과 양자 얽힘은 의상 스님의 ‘화엄경 법성게’와 맞닿는다.

진우 스님은 “입자는 색이면서 공이다. 입자는 물질로도 파동으로도 나타난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세상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 수 있다”면서 “마음도 어떤 때에는 마음이라고 규정지을 수는 있는데, 어떤 때는 마음이라고 할 수 없는 성품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성품을 단박에 박살내고 깨우치는 것이 선명상이고 그 정점에 있는 수행법이 일체 화두를 타파하는 간화선”이라고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선명상 수행의 목적이 일체 괴로움에서 벗어남에 있음을 거듭 밝혔다. 스님은 “업장을 없애는 것이 나의 괴로움을 없애는 것이다. 괴로움을 없애려면 일단은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락(苦樂)의 윤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선과 명상이 같은 맥락이자 뿌리임을 강조한 진우 스님은 “‘K-선명상’을 세계화시키는 것이 제 목표다. 이를 통해 우리의 고유한 부처님 법이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려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9월 24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린 제5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 명상콘퍼런스 기조강연에서 선명상의 필요성과 실천법을 전했다.

이에 앞서 동국대(총장 윤재웅)는 제5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 개막식을 중강당에서 개최했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많은 현대인들의 고통과 번뇌의 경험에서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방법이 바로 명상 수행”이라며 “이번 서울국제명상엑스포를 통해 마음을 치유하고 삶을 환하게 열어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윤재웅 총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엑스포에서는 종립대학인 동국대만의 차별화된 명상법을 안내하기 위해 불교의 선, 명상을 강의하는 교수진과 국내외 명상전문가가 함께 한다”며 “앞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불교 전통 명상법을 표준화하여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9월 26일까지 동국대 서울 캠퍼스 일원에서 개최된 제5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는 11명(해외 5명, 국내 6명)의 세계적인 명상 분야 지도자들이 참여해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명상 콘퍼런스’를 비롯해 나에게 맞는 명상법을 찾아보고, 세계 각국 명상을 경험해볼 다양한 ‘체험부스’ ‘좌선실 명상체험’ 등이 진행됐다. 신중일 기자

청도 운문사 역사·문화 ‘한자리에’

9월 25일 역사문화관 개관식
연면적 647㎡ 1층 전통 양식
‘운문사 중수공덕비’ 제막식도


운문사는 9월 25일 경내에서 ‘운문사 역사문화관’ 개관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손문철 대구지사장

청도 운문사(주지 은광 스님)의 역사와 문화, 성보유산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역사문화관이 개원했다.

운문사는 9월 25일 경내에서 ‘운문사 역사문화관’ 개관법회를 봉행했다.

4900㎡ 부지에 연면적 647㎡의 1층 전통양식으로 조성된 운문사 역사문화관은 운문사역사관과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과 50석 불교문화강의실, 작품 수장공간 등으로 구성됐다. 상설전시실은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의 행장과 육필 원고와 서예작품 등이 전시돼 있으며, 기획전시실에서는 내년 2월 2일까지 운문사 승가대학 동문스님들의 작품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팔공총림 방장 의현 스님이 법문을 통해 “6.25전쟁 당시 스러져가는 법당 하나 남아 있는 폐허에서 회주 명성 스님께서 일생을 다 바치고 헌신하여 이토록 아름다운 화엄세계를 건립했다”고 설했다.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은 축사에서 “운문사 역사문화관 건립으로 회주스님의 업적과 함께 비구니 승가의 문화적 전통을 새롭게 조망할 수 있는 장을 마련됐다”고 축하했다.

운문사 주지 은광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운문사 역사문화관을 불교와 철학, 예술과 문화를 함께 도모하고 재미와 신명, 진지함과 기발함이 숨 쉬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개관식에 앞서 한국 비구니계의 정신적 지주이자, 운문사를 한국 최대의 비구니 강원과 대가람으로 키워낸 명성 스님의 공적을 기리는 ‘운문사중수공적비’ 건립 제막식도 함께 열렸다. 신중일 기자

BBS불교방송 제11대 사장에 서진영 원장

제125차 이사회서 만장일치로



BBS불교방송 이사회(이사장 덕문스님, 이하 불교방송)가 제11대 불교방송 사장으로 대한불교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추천한 사장 후보인 서진영 자의누리 경영연구원장〈사진〉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BBS불교방송 이사회는 9월 26일 마포 다보빌딩 3층 다보원에서 열린 제125차 회의에서 진흥원 추천 사장 후보 2명인 서쌍교 후보(SBS보도본부 부국장)과 서진영 후보에 대한 면접 심사를 진행하고 이 같이 결의했다. 제11대 사장의 임기는 9월 26일부터 4년간이다.

서진영 제14대 불교방송 사장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와 동 경영학 박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유학과 철학 박사를 취득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대우교수,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전임교수, 한국경영학회 상임이사, 한국방송통신위원회 방송평가위원 및 재허가 심사위원, KBS-1라디오 ‘라디오 시사고전’ 진행자 등을 역임했다. 현대자동차, 삼성그룹, 우리홈쇼핑, BBQ그룹 등 국내외 기업 전략 및 인사평가 컨설팅을 수행했다. 현재 자의누리 경영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법명은 일심(一心)이다.

사장 선출과 함께 임기를 시작한 서진영 신임 사장은 “임직원이 자부심을 갖고 행복한 직장과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청취율 향상, 직원 복지 강화 등 BBS 경영에 최선을 다 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이사장 덕문 스님은 “서진영 신임 사장과 임직원과 이사진, 청취자와 시청자 모두가 하나돼 불교방송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신중일 기자





